



산업부는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적기준공과 함께 기술보안, 안전성이 담보되도록 외국인고용 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보도 주요내용>

11.10.(금) 한국경제 「9조 샤힌프로젝트 위기... 외국인 인력수급 비상 걸렸다」에서는 플랜트업계가 석유화학 설비 공사의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해제하지 않아, 샤힌프로젝트 등의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부는 석유화학업계의 기술보안, 안전우려를 해소하면서 투자 프로젝트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예방조치 및 합리적 허용범위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산업부는 샤힌프로젝트 등 대규모 석유화학 투자프로젝트 적기 준공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음주 월요일(11.13.)에 산업부와 석유화학업계, 플랜트 건설업계 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합리적 방향으로 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용훈	(044-203-4220)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4226)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책임자	팀 장	이동철	(044-203-4930)
		담당자	사무관	소명희	(044-203-4932)